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열람석 개인좌석화 자제해야
이기주의 배제한 경희 사랑으로 해결

우리 수원배움터의 도서관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각 단대마다 소규모의 열람실을 마련하고 학생회관의 일부를 열람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시험때마다 만원이다. 불쌍 먼저 입실해서 자리에 앉았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가방과 책들이 사람보다 먼저 입주(?)했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은 규정상 방 11시를 넘으면 가방과 책들을 무조건 수거한다고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아랑곳하지않고 몇몇 자리는 이미 분양입주(?)되었다.

우리 경희학우들은 좀 더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고 현실이 이기심을 극대화시킨다해도, 우리들만큼은 크고 넓은 마음을 펼쳐야 한다. 남들이 자리를 맡아놓고 마치 자기 소유인 양하며 공공질서와 서로간의 믿음을 깨버린다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않되겠다.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집 공부방처럼 차지한 자리를 학교 열람실로 돌리는 것이 청년학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수원배움터 도서관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지금도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할 우리 경희학우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도서관공사가 마무리지길 바랄 뿐이다. 우리 경희 일단 학도는 그때까지 불편과 아픔을 같이하며 보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 승 원
〈서반아·2〉

인간성 무시한 낙태행위 만연
생명의 본질 파악 우선돼야

90년 UN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낙태로 인하여 사상되는 아이는 하루에 3천명, 1년에 5천5백만명에 이른다.

낙태를 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가족계획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계획이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지 이미 아이가 생긴 후에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둘째로, '기형아는 낳는것이 옳은가 차라리 죽이겠는가'하는 문제에서 죽이는 것이다. 기형아도 생명이 있는 인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아이가 기형이 되는 원인은 그 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태어난 생명이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태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마땅히 부모는 그 책임을 지고 아이를 길러야 할 것이다.

낙태의 세번째 이유는 혈족간의 일신, 강간에 의한 일신,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문제이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불의(不義)아를 일신하는 여성의 마음은 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낙태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정당행위인가? 이를 가장한 살인인가? 어떤 사람들은 태아는 그저 작은 덩어리일 뿐이므로 맹장을 떼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유산지지자들은 인간을 죽일 용기를 갖기위해 '아기'라는 단어대신에 '덩어리'나 '물건'같은 비인간적인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이기 위해…

우리 강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얼마나 책임있게 살아왔는가를. 가시광선영역밖에 보지 못하면서, 영혼의 유무도 제대로 모르면서. 적어도 생명의 본질은 알지. 생명에 대한 더이상의 유린행위는 더이상 하지말자. 무엇가 더 밝고 맑은 사회를 위해 건전하고 알차게 살자.

강 창 원
〈철학·3〉

독자투고 —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실체로 인식해야 할 가깝고도 먼땅

가깝고도 먼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쥔 채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일본연수를 일본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고 감정적 측면만 강조되어진 인일한 터정을 버리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22시간이 걸려서 오사까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 단원은 압구수속을 마친 후 잠시 버스으 기를 기다렸다. 같은 동양인의 모습이어서 그랬을까. 일본과 나의 나라가 한 언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가까운 나라인데도 언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놀라움은 수 많은 세월로 인정하기 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에 대한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구나'하는 아주 평범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이 깨끗함이란 말 속엔 근면, 부지런할 등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것이 새것, 새물건 처럼 보이고 손상이 없는것들로 점돈되어 있어 청결함이 도시전체를 메우고 있었다.

우리 단원들이 오상까지역에서 이틀동안 묵게 될 新 Toko 호텔로 향했다. 속소에 도착한 나는 새로운 환경에 한참을 긴장해 있었다. 청바지에 배낭을 맨 우리들의 차림과 세련되고 정돈된 호텔로비와는 아주 대조되어서 우리 일행의 모습은 그야말로 동네 동산쪽 같은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방 배정을 받은 나와 친구는 주의 사항으로 무장을 하고 정해진 방으로 들어갔는데 또 한번 난 그 청결함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제대국이란 말을 실감하게 하는 커다란 TV와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들. 잘 개어져 있던 기모노식 잠옷 등과 함께 보여지는 청결함은 일본의 첫 인상을 대변해 주었고 이러한 일본의 좋은 인상들은 나의 비관의식을 자주 느슨하게 했다.

오상까 교육대학으로 가기위해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신기하게도 자동차 클랙션 소리를 한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인지 조용히 움직이는 도시같이 보였다.

이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일본교육의 역사와 근세일본교육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 일본 역시 교육측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밝히고 특히 명문대 합격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과 국가가 바라는 인간상의 실현에 중점을 두었던 최근 교육을 비판하였다. 몇몇 질문을 마지막으로 강의는 끝났다. 교내식당에서 칼국한 점심을 먹고 30분 정도 도서관을 구경했다.

경제대국이 된 저력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교육계에 만큼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좀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방학이라서 그런지 도서관엔 학생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대학방문을 마친 일행은 구오쯔 고등학교로 향했다.

이 고등학교는 국립고등학교로서 에어컨대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보기드문 장소인 것 같았다. 구오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현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들었는데 현 일본의 교육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자금까지의 교육방침은 획일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교육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이 '획일적'이란 말은 아마도 에도시대부터 기술과 교육을 중시해 온 것으로. 이 두가지가 시회로 환원되는데에만 치중되는 교육을 일컫는 뜻일 것이다. 좀더 인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이셨다.

복적지를 오사까성으로 옮기면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년 입시전쟁을 치루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써클활동이나 그 밖의 여러 자율적인 학교방침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생각되어졌고 그것이 모든 고등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학정원수에 비추어 볼 때 바림직하다고 생각했다.

그외도 우리는 교토시내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했다.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20분이상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일제 시대 때부터 민족학교 건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24년만에 이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학교 출입생은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식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 갈만한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일본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텐데 굳이 한국말을 배운다고 하는 인웃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한국인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강영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왜 일본이 잘 살게되었는가에 대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에도시대부터 일본은 유교륜하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장인이나 전문인의 기능을 중시하는 전통을 세웠던 것이 지금에는 커다란 경제대국을 이끌어낸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학습'에 있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본다.

일본은 자기의 문화를 외국에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던 일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고 배우는데만 힘을 기울였던 것 같다. 그 수용의 힘든 수용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소화로써 일본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항상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 40년내에 그종주국을 겨냥해서 추월했다.

이번 일본지역 연수를 통해 막연히 역사와 감정과, 경제대국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던 내 시각이 얼마나 좁고 편협된 생각이었나를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어떠했든지간에 현 우리 시점에선 배워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우리 젊은 세대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와 자세를 갖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적극적 수용이 완전한 수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듯이 새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서부터 자기것을 지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린 너무도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문화적 지부심의 결핍이야말로 나라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 본 일본을 내가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것는 경제대국의 부유한 일본으로서가 아니라 질로 일본만의 독특한 생활문화에 대한 부러움일 것이다.

김 상 아
〈미교·3〉

일본에 대한 새로운 대응 자세 필요
자주적인 문화 개방 이루어져야

'生則學'이 기반인 학문연구

내가하는 공부

내가 우리 대학에 온지도 어언 11년째를 맞고 있다. 이 11년이라는 세월은 선배교수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경력이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체득하게한 시간이며 현장인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대학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날이 즐겁고 보람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열심히 반추하는 삼매지경에 빠져있다. 공부하는 것 못지 않은 즐거움의 연속에서 살고 있다.

일찍이 칸트의 '인간학서설'에서도 내세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것이며, 무엇을 바랄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도 "인생 그 자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하는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한 자문자답인 것이다.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일찍이 공자가 말하기를 40세가 되면 세상일에 미혹하지 않는 불혹을 지난지도 1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나 자신을 내세울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늦게나마 터득하였다면 '생즉학'의 원리, 즉 산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칸트도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내가 하는 공부는 과연 나는 오늘이 있기까지 근면과 인내와 신용과 정성의 씨앗을 뿌렸는가. 그리고 노년에는 과연 노년의 멋과 낙을 즐기며 추억을 회상하며 완숙의 여유를 즐기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계 탁
〈사회대교수·행정학〉

인생은 다른 생물의 삶과 다르기에 주어진 삶에 대하여 그 '뜻'과 '값'을 물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다가 죽을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삶의 뜻을 캐어내려하고, 그 삶의 값을 찾으며, 온갖 모순과, 고통, 속박에서 벗어나와 영원히 생명의 자유를 얻으려는 것 등에서 삶의 참뜻을 찾아야 할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한순간 만이라도 삶의 참뜻을 음미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것이다.

학문연구에서 삶의 의미 발견
인생을 반추하는 방법 터득

석가가 한 말 즉 자신을 등불로 삼고 (自燈明), 진리를 등불로 삼고(法燈明), 자신을 지광이로 의지하고(自歸依), 진리를 지광이로 의지하고(法歸依) 옳은 길을 향하여 계속정진하는 길이 또한 우리의 공천하는 길이 되어야 할것이다. 끝으로 내가 희구하는 바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발표되었을때 그 소설 주인공의 염세적 성향에 경도한 나머지 자살이 속출하였다고 한다. 나도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나의 인품과 학문이 나의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 제7차 아시아·오세아니아주 상의학회의 참석차 태국방문

【수원캠퍼스】 ▲박경서(공대·기계공)교수=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화술대회 참석 및 논문발표차 일본방문

동문모임

강서고 동문회

【수원캠퍼스】▲강서고=오는 7일 오후 5시 30분 광대 휴게실 ▲대신고·배화여고=오는 6일 오후 5시 30분 광대 휴게실

교수동정

이기형교수 그리스행

【서울캠퍼스】 ▲이기형(의대·의학과)교수=오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14차 국제대장·직장외과 학회참석차 그리스 방문 ▲이재현(의대·의학과)교수=오는 23일부터 31일까

동 기

동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박승준(국문·4) ▲은치안(철학·4) ▲임채정(철학·3) ▲김승철(물리·2) ▲김유진(지리·3) ▲김재근(경영·1) ▲조인형(무역·4) ▲서수원(무역·3) ▲김길태(신방·2) ▲의대연구부 삐에로 ▲한의대학회 ▲박종배(한의본·2) ▲조현상(한의예·2) ▲박신영(한의예·2) ▲김정훈(한의예·1) ▲황정주(약학·4) ▲김춘지(약학·4) ▲전진영(가약·1) ▲김현경(성악·2) ▲박기성(체육·3) ▲이봉연(무용·1) ▲신재호(축구부) ▲김해빈(삼의원·314) ▲오솔열(삼의원·319) ▲현경현(삼의원·406)

【수원캠퍼스】 ▲솜기국(불문·3) ▲김은정(불문·3) ▲윤상욱(영문·2) ▲안호준(일문·1) ▲이호근(경영·3) ▲김충탁(물리) ▲황대문(물리·1) ▲조영래(화경·2) ▲김현수(산업공·3) ▲김용성(전자) ▲잠기수(섬유·3) ▲정창섭(전산) ▲류종렬(식공·4) ▲한동섭(산업공·3) ▲오성일(섬유공·4) ▲이상준(기계·4) ▲천인복(화공·4) ▲허유(섬유) ▲이청원(토목·3) ▲윤정경(화공·3) ▲박종만(임학·3) ▲박성희(원예·3) ▲허윤정(원예·3) ▲김정원(체육·2) ▲성헌재(태권도) ▲임장섭(태권도) ▲김성일(학생회관 718호) ▲신기용(애지원·116호) ▲고전기타반 ▲황덕현(산업공·1년)=일반소포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변창근(지리·92) ▲박중규(회계·92) ▲한종호(가관·92) ▲임지연(의상·92) ▲류한전(한의예·92) ▲김경미(약학·91) ▲홍순만(체육·91) ▲체신부 온라인전자 종합통장 김종탁

【수원캠퍼스】◆학생증=▲송보영(종문·3) ▲홍근호(전자공·92)

알림대

변호연직원 결혼식 오는 11일 항군회관서

수원캠퍼스 교무처 서무 변호현씨는 오는 11일 오전11시 이은경양과 항군회관 예식부 1층에서 결혼식을 한다.

대학생 산문공모 당선작

■최우수작

'2012년의 日記'

21세기 테크노피아시대의 대학면화상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듣기위해 금성이 마련한 '대학생 산문공모'의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21세기를 맞는 희망찬 바램을 보내주신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들께 감시드립니다. 여러분의 꿈과 금성의 기술의지로 함께 그려본 밝은 미래의 청사진 — 금성의 첨단 전기·전자 테크놀로지로 실현하겠습니다.

■입상자 명단

선정구분	성 명	학 교
최우수작	강창성	중앙대 산업정보학과
우 수 작	홍순식	연세대 행정대학원
〃	인희균	외국어대 대학원
〃	노병규	건국대 대학원
〃	유수진	숙명여대 회학과
가 작	황성률	외국어대 독일어과
〃	강정훈	인하대 중국학과
〃	최병우	한양대 사학과
〃	김은만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	박윤근	중앙대 전기공학과
〃	서성현	전남대 화학공학과
〃	임미린	고려대 사학과

*최우수작에 이어 입상자은 각 대학신문에 게재할 예정임.

2011년 12월 20일(화) 입학시험. 문제가 차례로 모니터에—

대학교 정문앞에는 벌써 수험생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사이로 바빠걸어 내 수험번호가 쓰여진 커다란 문앞에 섰다. 손이 조금씩 떨려온다. '이러면 안되는데…' 다시 한번 상호흡을 크게 하고 내 수험번호카드와 지문을 인식검출기에다 접수시켰다. "어서 오십시오 강창성씨. 부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강창성씨의 좌석번호는 ad-1132입니다."

조용하게 내 좌석번호가 쓰여진 좌석에 앉았다.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시험 문제들이 모니터위에 떴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다.

2012년 3월 23일(금) 도서관에서. 교수님께 양보한 내 차례—

오늘은 다음 주까지 작성해야하는 철학개론 페이퍼 자료를 구하려고 대학도서관에 가보아야했다.

우선 열람실의 메인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벌써 언어 철학부분의 현재시간 대출이용도가 43%가 넘게 나왔다. 다행히도 내가 당장 필요한 책한권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책을 찾아가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학생이 대출해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약을 해놓고 저녁무렵 도서관에 가보니 과연 열람실앞의 안내컴퓨터 화면에는 페이퍼작성에 필요한 철학부분의 책이 거의 대출중이었다!

그래도 내책은 따로 고이 모셔져 있었지… 시서에게 책을받아 학생카드로 대출남자를 등록시켜놓고 책뒤의 바코드를 자동인식 검출기에다 살짝 그어대기만 하면 모든 상황은 끝! 그런데 시서앞에 철학과 교수님이 계신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시서에게 책을 받아가려는 순간, 교수님이 그 책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루만 나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반강제적으로 책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임에는 틀림이 없다. 호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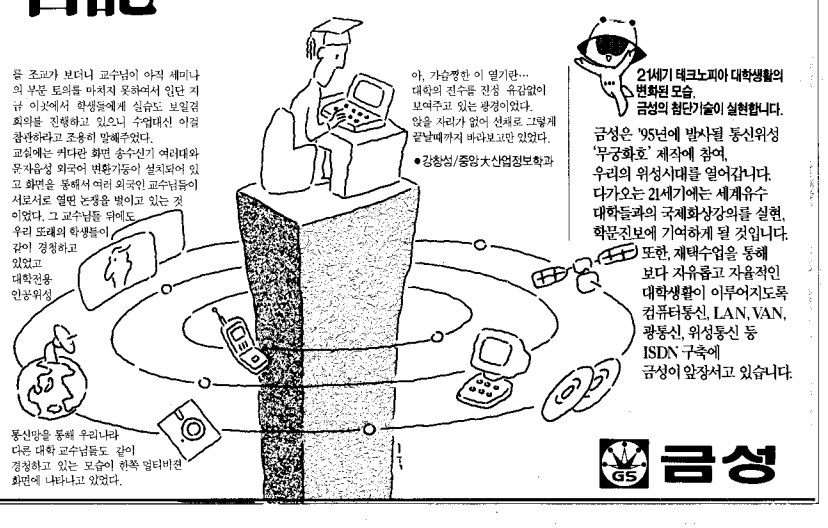
2012년 4월 16일(월) 아, 가슴 뛰한 이 열기— 국제학생수업/

1시간 이르게 교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 일… 학생들은 뿔뿔히 차고 수업은 벌써 진행중인 것이 아닌가! 당황하고있는 나를 조교가 보더니 교수님이 아직 세미나의 부분 토의를 마치지 못하여서 인단 지금 이것에서 학생들에게 실습도 보일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업대신 이걸 참관하라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교실에는 커다란 화면 송수신기 여러대와 무자습성 외국어 변환기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 외국인 교수님들이 서로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 교수님들 뒤에도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같이 경청하고 있었고 대학전용 인공위성 통신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한쪽 멀티비전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다.

아, 가슴뛰한 이 열기란… 대학의 전수를 전공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선채로 그렇게 끝날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었다.

●강창성/중앙大산업정보학과



21세기 테크노피아 대학생활의 변화된 모습. 금성의 첨단기술이 실현합니다.

금성은 '95년에 발사될 통신위성 '무궁화호' 제작에 참여, 우리의 위성시대를 열어갑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유수 대학들과의 국제화상강의를 실현, 학문진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택수업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대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컴퓨터통신, LAN, VAN, 광통신, 위성통신 등 ISDN 구축에 금성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술의 만남—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란 금성의 첨단 전기·전자기술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인간생활을 이루는 기술낙원을 말합니다.

금성